



배국환(왼쪽에서 네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7일 광주시 동구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사무실을 방문한 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아시아 문화전당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화전당 조성사업은 옛도청 별관 철거 논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공사 중단 상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농식품부 J프로젝트 '알박기'

관광시설 최적지 해남 송천지구에 유리온실단지 추진

농림수산식품부가 7일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개발 핵심사업 예정부지인 해남군 산이면 송천지구에 대규모 첨단 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J프로젝트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전남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입장은 송천지구

구 간척지를 J프로젝트 부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최근 부지 축소 논란을 빚고 있는 J프로젝트 사업에 또 다른 약재가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09년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영산강 간척지(713ha)와 새만금 간척지 일부(700ha) 등 2곳에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첨단 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간척지 중 영산강 간척지는 해남 송천지구(15.4km)와 고흥 해남군 산이면 2-1공구 간척지 중 7.13km이다. 농식품부는 이곳에 대규모 첨단 유리온실단지를 지어 농수산물 수출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송천지구는 지난해 16일 농식품부가 농어업회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



정해 공고하고 최근 사업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이며, 민간투자나 국고를 이용한 펀드 조성,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이다.

그러나 전남도가 송천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카지노 호텔 건립 등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7월 미국 트러스(TRUSS)그룹의 차이내텔사, 대만 건설사인 '후주'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농식품부의 방침은 외자유치 노력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는 지적이

다.

지난달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관광사업자금 5천만 달러의 유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여서 농식품부의 이번 방침으로 J프로젝트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송천지구는 영안호에 인접한 수변구역이어서 관광위락시설 입지로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외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 푼의 달러도 아쉬운 관에 외자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마다하고 온실을 짓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온실단지 사업자 선정 공모 마감인 3월까지 농식품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지식경제부 등 외자유치에 긍정적인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조속히 송천지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고속철 빨라야 2014년 완공

논란을 빚어온 호남 고속철도 완공 시기는 빨라야 2014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에서 정부 경제운용방향 설명회를 가진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낮 지역 언론인들의 오전에서 "호남 고속철 완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역민의 불만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호남 고속철은 공사에 물리적 어려움이 많아 빨라야 2014년에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차관은 전남 전남도청 설명회 자리에서 "호남고속철을 2012년에 완공한다는 대통령 공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정부가 당초 계획한 2017년 보다는 앞당길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배차관은 또 "호남 고속철은 수익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정부 기간 철도망 구축 차원에서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했으며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자동차부품단지·R&D 특구 ‘5+2’ 수정 대신 광주 배정”

배국환 차관 정부 방침 전해...市 수용 여부 관심

정부가 "호남 소외를 가중한다"며 '5+2 광역경제권' 사업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광주시에 자동차부품산업과 R&D특구 지정 등 대형사업을 배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5+2 광역경제권' 권역조정 논란으로 빚어진 광주시·전남도와 정부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광주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카드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언론인과 간담회에서 "광주시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과 R&D 특구 지정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미뤄져 왔던 광주시의 사업 기밀계획서가 실무협의를 거쳐 조만간 제출될 것이다"며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그는 이어 "양측의 실무적 합의 방향은 (5+2 광역경제권 권역 조정 없이) 지식경제부가

지역전략산업을 집중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배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5+2 광역경제권"재조정이 어렵다면 광주시만이 납득할만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해달라"고 밝힌 박광태 광주시장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포함될 이들 사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실무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부품산업과 R&D특구는 광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사업 유치가 확정되면 투자유발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광주시가 올해부터 본격 육성키로 한 8천억원 규모의 클린디젤자동차 산업을 뒷받침하고 광주의 자동차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광주 R&D특구는 광주시가 지난

2003년부터 지정을 추진해온 숙원사업으로 사업비만도 4천740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광주첨단과학산단, 수완지구 미개발지역, 장성그린벨트, 하남 산단 등 모두 1천152만 평을 연구개발(R&D)특구로 개발, 국제비즈니스 파크와 칼리지 플라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대형 프로젝트다.

이제는 정치적인 '합의'에 이르거나 사업계획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광주시가 정부의 제안을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의 확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광주시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동일 경제권 내 전남도나 전북도도 실무적으로 선도산업 배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정부, 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확답할 수 없지만 정부가 자동차부품단지와 R&D특구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부품단지와 R&D특구를 광주에 준다면 광주시는 차세대 성장을 기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코스피 57일만에 1,220선 회복 환율은 금락 1,292원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닷새 연속 상승하며 1,220선을 돌파했다.

7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3.89포인트(2.84%) 오른

1,228.17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7.72포인트(2.22) 오른 356.13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가 증가 기준 1,200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 10월20일 이후 54거래일 만이며, 1,220선을 넘은 것은 57거래일 만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는 정부정책으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신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랐으며 구조조정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건설, 조선주가 크게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0.00

원 금락한 1,292.5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3일째 이어진 원화강세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데 따른 것이다.

/장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2010학년도 대비 제수 선형 학습반 모집안내

기간: 2009년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10:00~12:00)

대상: 선형해수준에 한하여 중학생 1학년생 (단, 수능을 본 학생)

장소: 도시기 후 영구 송천동 제수 선형

과외내용: 2009년 2월 14일 전국 중학생 제수선형 시험 대비 - 수리 - 외국어 기교 훈련(3시간)

학비: 1. 2009년 2월 14일 수업비
2. 서울에서 직접수강하시는 일회성 출장 경비(서울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은 서울에서 출장비 20000원, 2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은 서울에서 출장비 30000원)
3. 전국 수업료 기교시 교육 훈련비 (수능을 본 학생) 1000원 - 수업료 1000원 Group Study
4. 입학료 1000원 (2월 14일 수업비 포함)
5. 수능을 본 학생 1000원
6. 학교에서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및 1차 시험비
7. 재입학 시금 1000원
8. 복수 입학신청(입학비+수업비)을 한 학생은 10000원

문의: 062-367-3000

후남안성학원